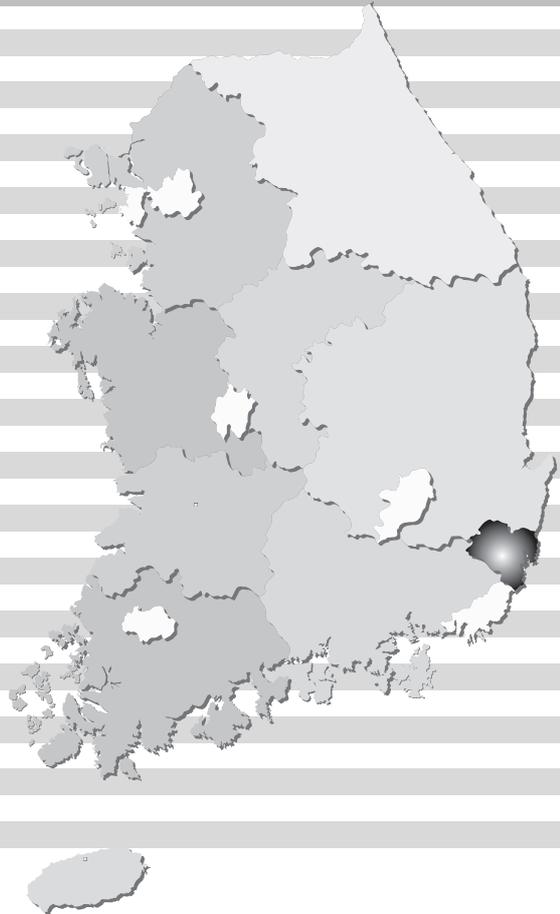


07

울산광역시

중구 | 정갑윤
남구갑 | 최병국
남구을 | 김기현
동구 | 안효대
북구 | 윤두환
울주군 | 강길부



선거구명	중구	정갑윤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중부소방서 이전, 전선지중화 사업, 공영주차장 확대)

■ 제안이유

중부소방서는 구시가지 상가지역으로 출동지연으로 초기대응이 곤란하고, 잦은 출동로 단속으로 인근상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임. 또한, 1968년도에 신축된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젊음의거리와 어울리지 않음.

우정삼거리~중앙시장입구 구간은 전선 및 배전반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방해로 상권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중부소방서 이전
 - '07.5월, 혁신도시에 이전부지 지정승인을 받았으나 부지매입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 소방업무의 특성상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와 유지·관리문제를 동시 해결
- 전선지중화 사업
 - 한전과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협의
- 공영주차장 확대
 -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을 마무리 짓고, 국비(균특회계, 특별보조금)지원 방안 확보

■ 예상기간

- 2008년 한전과 협의 착수
-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

공약 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연구소 유치

■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편성한 2008년도 구·군예산현황에 따르면, 중구의 지방세 수입은 90억5,100만원으로 울산전체 2,227억원의 4%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15.1%로 전체 39.2%를 크게 밀치고 있는 실정. 열악한 지방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를 징수할 만한 기업체 유치가 급선무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지금까지 중구가 기업유치에 어려웠던 점은 바로 입지조건이 떨어진다는 점. 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분야 공공기관과 다운동 정밀화학지원센터를 연계하면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의 촉매제가 될 전망
- 무엇보다 혁신도시는 울산의 주된 도시개발축인 국도24호선 축상에 입지하고 있고, 가천지방산업단지-고속철도 역세권-울산국립대학-오토밸리-매곡지방산업단지 등 울산의 주된 개발사업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것임.

■ 예상기간

- 부지매입이 시작되는 2009년부터 가시화되서 혁신도시가 완공되는 2012년 이후에는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

■ 기대효과

-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과 소비층 증가
- 중구가 더 이상 다른구의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립형자족도시라는 도시이미지 제고

공약 3

시립미술관~울산읍성~태화루를 잇는 문화벨트 조성

■ 제안이유

- 북정동, 교동 일대는 울산읍성과 동헌, 객사 등의 유적이 있는 울산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현재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중구청에서 복원을 계획중이고, 로얄예식장 주변 태화루 복원은 울산시에서 2011년까지 4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에 있음
- 또한 미술계를 중심으로 울산초등학교 자리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어서 이를 묶어 문화벨트를 조성하려는 것임.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북정역사공원(읍성, 객사 등)은 사업비 1,000억원 중 600억원을 재개발조합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울산읍성이 울산의 중요 문화재임을 감안하여 부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일부를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시립미술관 유치문제는 중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한편으로

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측과의 사전협의를 필수

■ 예상기간

- 시립미술관 : 2012년까지 700억원 소요
- 북정역사공원 : B-04구역 재개발 완공까지

■ 기대효과

- 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 중구 재정부담 경감

공약 4

도심지 공원 및 체육시설 확대(학성제2공원, 무지·함월공원, 구민운동장 등)

■ 제안이유

- 도심내 공원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울산 전체의 도시이미지를 공업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바꾸기 위한 사업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학성 제2공원
 - 이 지역은 이미 '62년 도시관리계획(공원)이 결정되고, '90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 보류되고 있음.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사유지매입과 시설물 건립을 위한 146억원 확보 필요
- 함월·무지공원
 - 재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가 완공될 때를 대비하여 울산대공원 수준의 조성도 충분히 가능한 곳. 1,945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울산시와 사업비 확보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태화강 산책로 완전 연결
 - 구간이 단절된 태화루는 데크를 설치하여 연결
- 구민운동장
 -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마련
- 태화강 인조잔디축구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지장물 철거문제를 해결하고, 계획대로 불고기단지 앞 고수부지에 건설되도록 추진

■ 기대효과

- 주민 건강과 주거 수준 향상

공약 5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맞는 법·제도 정비

■ 제안이유

- 좌파정부 10년동안 균형발전 논리에만 치우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울산이 미래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
 - 자유무역지역, 에너지특구 지정 등과 같이 울산의 요구를 정부정책에 반영. 상황에 따라서 입법추진도 병행
- 산업용지 부족 문제
 - 이명박대통령의 울산공약 첫 번째인 ‘국가산업단지 확장’ 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요구
- 인적자원의 생산, 활용 및 재생산의 문제
 - 지역산업과 연계한 울산국립대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재이탈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 예상기간

- 제18대 국회 내

선거구명	남구갑	최병국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범죄 없는 Clean울산 범시민운동 지속적 전개**

- 우리사회는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고, 특히 국가기관의 예산 오·남용이나 대기업, 공기업의 비자금 운용과 같은 사회지도층이나 권력형 범죄,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는 공연한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 같은 사회병리현상에 편승하여 흉악범이나 민생침해사범, 공공질서파괴사범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 화이트칼라범죄 신고센터나 범죄퇴치 시민운동 등을 통해 각종 범죄를 척결하여, 사회부패지수를 낮추고 부패와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깨끗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2 **대통령 공약사항 원활한 추진**

-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 공약한 10대 사업, ①울산 국가공단 확장 ②Hi Speed 울산 프로젝트 추진 ③국립 울산 산재 재활병원 건립 ④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산업기지화 ⑤KTX 울산 역세권에 문화 및 전시컨벤션센터 설립 ⑥태화강 삼호 지구 생태공원 조성 ⑦울산지역 농·어촌 특화 사업 지원 ⑧복합 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 ⑨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응용과학 특별대학으로 육성 ⑩울산국가산업단지의 공해차단 완충녹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시와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진 기획단을 만들어, 기획에서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전국 최대의 백로, 까마귀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 삼호지구의 생태 친수공간을 살려, 물, 대나무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웰빙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 그리고 백로, 까마귀 서식지는 조류관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또한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기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인재 양성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 및 강의실, 연구소, 전산정보원, 기숙사 등이 적기에 설립되고, 연구기자재 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지원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총 8,000억 원 예상)

공약 3 무거·여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무거천과 여천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휴식을 제공하는 친환경적 친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무거·여천천은 지난 200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국비 92억원 등 총 185억원을 들여 정화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수질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 이에 인근 대규모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오·폐수가 모두 걸러질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확충하고 유수량을 늘려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그리고 호안을 정비하고 생태관찰로를 설치해, 전형적인 도심관류 하천인 무거·여천천을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4 옥동지구 교육지원기관 설립

- 울산은 높은 생활수준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옥동 41,427㎡(12,532평)에 교육문화회관(「도서실 등 교양·문화관」, 「멀티미디어실 등 평생교육·정보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야외시설」)과 과학·정보화센터(과학실험실, 과학체험관, 교육정보화센터, 정보통신교육실, 인터넷교육방송실, 식물생태학습장, 간이기상대 등)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 2007년 하반기에 기관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당해연도 사업비 266억 원 확보)했으며 2009년 말까지 계획한 모든 시설(예상 예산 560억 원)이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교육지원기관이 설립되면 울산남구는 물론 울산 전체의 교육 및 문화 수요 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약 5 (옥동) 남산 은월봉 일원을 레저스포츠 공원으로 조성

-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산행인구와 도심거주지 주변 생활체육인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레저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남산 은월봉 일원을 레저스포츠 공원으로

조성해 울산의 상징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산 정상에는 ‘은월정’ (가칭)이라는 팔각정을 설치해 남산 레저스포츠 공원의 명물로 가꾸겠으며, 최고수준의 근린공원에 걸맞게 각종 체육시설물 및 주민편익시설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남산을 찾는 이용객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용객의 편익 증진 및 쾌적한 산책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도심 내 주요 녹지축을 연결하는 거대한 순환산책로(솔마루길 전용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 선암수변공원~신선산~울산대공원~문수국제양공장~삼호산~남산~태화강둔치에 이르는 산책로를 만들어 시민생활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명	남구을	김기현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장생포 고래특구 지정 및 세계적 고래관광명소화

■ 현황

- 장생포는 현재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소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2008년도 건립예정인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과 가로시설물, 전선지중화, 간판 등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세계적인 고래문화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특히 2005. 6월 개관한 고래박물관은 약 100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가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음.

■ 추진 방향

- 울산 남구 장생포동·매암동 일원에 대한 지속적인 고래도시 이미지 조성과 특화 사업을 위하여 장생포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고래관광명소화할 계획임.
-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비전있는 특화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 및 시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주요 추진내용

- 고래옛모습전시관 건립, 고래테마공원 조성
-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고래문화 인프라 구축
- 세계인이 찾는 고래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치

공약 2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 현황

- 남구지역은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이며, 울산광역시 인구(110만)의 32%에 해당하는 35만명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체육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

- 특히 남구 야음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산업 발전의 산실 역할을 담당해온 지역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열악

■ 추진방향

- 남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야음동 일원)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건립 예정지 주변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점 등으로 우수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음.
- 국가기여도 및 환경오염지역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선정 작업 및 원활한 추진 지원

■ 주요 추진내용

- 남구 야음동 일원에 약 80억원(체육진흥기금 30,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구기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
- 건립 후 인근주민의 체육시설 및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공약 3

여천천의 명품 생태하천 조성 및 여가편의시설 확충

■ 현황

- 과거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이었던 여천천은 도심지 개발로 인해 하천의 기능 보다는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구의 기능을 해왔고, 하류는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이 퇴적되어 악취발생과 유해 곤충 서식으로 하천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 환경부가 2008년 1월 실시한 도시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여천천의 BOD는 16.6ppm으로 하천수질 7등급(10ppm 이상)에 머물러 신속한 수질정화사업이 요구 되고 있음.

■ 추진방향

- 여천천 하천정화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하여 수질정화사업의 효과와 하천생태계 복원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함
-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되돌려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생태적 서식처를 조성하고 친수공간 마련

■ 주요 추진내용

- 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계획대로 완료
- 여천천 주변에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등 설치로 주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생태하천으로 조성

공약 4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망 확충

■ 현황

- 2008년 2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74%가 학교 인근 2k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함.
- 또한 실종아동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2005년 2695건, 2006년 7014건, 2007년 860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 추진방향

- 스쿨존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운행속도 감시 신호등 설치' 확대,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강화 추진
- 학교 주변 어린이 대상 설문조사 제한, 성폭력 및 유괴 예방 워크북 보급 확대

■ 주요 추진내용

- 청소년 보호법, 도로교통법 등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

공약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증진

■ 현황

- 장애인은 출생부터 교육, 체육활동, 취직, 결혼, 임신 등 전생애에 걸쳐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음. 특히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체육활동과 사회활동에서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체육 및 문화활동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음.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하여 장애인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애주기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함.
- 특히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연습공간 확보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주요 추진내용

-
- 장애인의 체육활동,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가칭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안 제·개정

선거구명	동구	안효대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자연생태형 고래체험장 및 일산어촌관광마을 조성

- 울산은 고래도시입니다. 고래를 테마로 하는 관광자원인 생태형 고래체험장을 대왕암공원 내에 조성함으로써 울산을 국제적인 고래체험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 고래체험장은 약 12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고래길들이기, 고래교육센터, 테라피센터, 고래먹이주기체험장, 자연방사장, 터치풀, 수중전망대, 돌고래 씨워킹, 고래크루즈선착장 등을 건립하게 되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고래순치장은 야생고래를 포획하여 교육센터에 투입하기 전 수용하고 사육하는 시설이며, 테라피센터는 고래의 초음파와 고래와의 놀이를 통해 자폐증, 다운증후군, 우울증을 치료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고래 체험장 인근의 바다를 오가는 관광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착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 또 일산어촌관광마을사업도 추진하여 고래체험장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동구지역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다녀가시는 분들이 연간 20만명 이상 됩니다. 이 분들이 고래체험장과 일산어촌관광마을을 들러서 가게 한다면 우리 동구가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 동구가 스쳐가는 동구로 인식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머물고 싶은 동구, 다시 찾고 싶은 동구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약 2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조기 개통 (염포산터널구간 무료통행)

- 동구 일산동과 남구 매암동을 잇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조기에 개통하여 동구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염포산터널은 1996년 시비로 추진키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IMF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올해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 특히 염포산터널 구간은 동구와 시내지역을 연결하는 동구의 관문으로서 개통 후 동구주민들의 주통행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포산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울산시의 행정방향과도 맞지 않고, 동구주민에 대한 차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구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협상과정에서 최소한 염포산터널 구간에 대해서만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협상과정에서 민자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재정사업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3 **울산대학교병원 증축 및 의료시설 첨단화**

- 울산지역에 종합병원이 몇 개 없어 의료수요에 비해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다,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은 타도시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어 입원을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외래환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우선 병상 수를 지금보다 500병상 정도 늘리도록 하여 1,200병상 정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서울이나 타도시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 또 병원 내에 종합암센터를 비롯한 첨단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울산대학교병원은 영남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공약 4 **협력사 근로자 권익 대변 및 처우 개선**

- 울산 동구에 본사를 둔 현대중공업이 최근 몇 년간 조선 해양사업의 호황에 힘입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함께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의정활동 중에 협력사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수준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을 가져오려면 협력사의 경쟁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협력사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 현대중공업 협력사의 경우 일정한 근속연한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지금도 자녀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입니다.

- 대형 할인점(마트)의 등장으로 지역의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몇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시설이 낙후되고, 대기업과의 유통 시스템 차이, 서비스의 질 등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시장 중 월봉시장은 현대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대송시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 동울산시장과 남목시장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수도권의 선진시장 등을 찾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지역시장에 접목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평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 등을 열어 다각도로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선거구명	북구	윤두환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북구

-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우수한 인재양성 뿐이며, 특히 북구의 경우 주민 평균 연령대가 43.5세로 중고생 자녀 비중이 높아가고 있지만, 울산 5개 구·군중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관계로 주민들이 자녀 교육때문에 중구, 남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강한 욕구를 감안하여, 교육기관 및 시설 확충과 함께 질적 수준 향상을 모색
- 특목고 벨트 조성
 -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유치
- 교육연구기관 단지 조성
-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 우수교사 유치, 우수 학생지원, 북구 학사 건립(서울)
- 학생수련시설 설치

공약 2 풍요롭고 행복한 북구

■ 법개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부동산 거래세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인하 입법
- 노동자와 서민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 및 비정규직 자녀 교육비 지원
 - 산재피해자 국가지원 확대
- 가정·보육·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입법
 - 치매가정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지원
 - 보육정책 강화
-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방폐장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지역을 반경 10km로 확대 입법

■ 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 생활향상

- 오토밸리 2단계 사업 추진
- 효문국가공단 재개발 계획대로 완공
- 국가공단유치 (시례동, 상안동, 가대동 일원)
-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
- (가칭) 제 2이화산업단지 조성
- 중산 산업단지 완공
-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

- 북부경찰서 유치
- 북부소방서 유치

공약 3 테마가 있는 녹색도시 복구

■ 레일 파크밸리 조성 (효문-경주시계간 12.6km)

동해남부선 철도가 올해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으로, 이설이 완공되면 현 철도부지의 활용방안을 찾아야하며, 지역주민들이 철도소음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점을 감안하여 녹색쉼터로 개발

- 조각공원/뿌리(죽보)공원 조성 추진
- 기차 쇼핑공원 조성 추진 (호계역 일원)
- 교통공원 추진 (자동차 역사박물관, 세계 자동차 전시장)
- 연꽃 단지 및 테마공원 추진
 - 물고기, 나비, 야생화, 벚꽃, 허브 등 테마별로 조성
- 철도자전거

■ 무룡산 - 동대산 테마공원 벨트 조성

■ 동천강 테마공원 조성 (유채꽃, 휴식공원, 체육공원)

공약 4 교통이 편리한 빠른 복구

복구는 신생구로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임. 이로 인해 울산시관내에서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

- 동해남부선 철도 조기 이설 (울산-포항간)

-
- 오토밸리로 2구간 조기 완공 추진 및
 중산IC~경주 내남 간 도로 신설 추진
 - 7번 국도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 신송정교-중산동간 국도 확장
 - 옥동-농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 천곡-경주 외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 호계-범서간 동서횡단도로 개설
 - 경전철 농소권까지 연장

선거구명	울주군	강길부
정 당 명	무소속	

공약 1 울주군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큰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과 울주군도 제 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 울주군은 서울의 1.2배나 됩니다. 울산 그린벨트 면적 중 절반이 울주군에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의 울주군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면적이 넓은 울주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큰 걸림 돌은 그린벨트입니다.
- 울주군내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주거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산업용지로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발전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을 변경하여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등급 3~5급지가 80% 이상인 지역을 해제하여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충해야 합니다.

공약 2 울주군 전체 학교에 방범 CCTV 설치

- 울주군 관내 통학로, APT, 취약지역, 공공시설 등 약 250개 지점에 1,700개의 방범 CCTV를 전면 설치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통학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울주군을 범죄 없는 울주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유괴, 부녀자 추행 등 범죄 발생비율을 약 30% 이상 낮추겠습니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범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또한 노인 방범도우미로 활용을 하여 범죄 없는 울주군으로 만들겠습니다.
- 방범 CCTV 설치 대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인권침해 소지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공약 3 KTX 역세권에 20만 신도시 건설

- m언양을 중심으로 한 울주군 서부는 사통팔당의 교통망에 더하여 영남알프스라는 천혜의 산악관광자원을 비롯한 개발 잠재력이 큼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이 개통되면 울주군을 울산의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지금 22만평 규모의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초 울산발전연구원이 구상한 200만평 규모의 인구 20만의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20만 규모의 신도시에는 다목적 기능의 대형 컨벤션센터, 호텔 등의 상업기능과 문화 시설을 담겠습니다.
- 동으로는 KTX 울산역을 조기에 경전철을 착공하여 울산시내와 연결하고, 남으로는 KTX 울산역을 경전철로 양산으로 이어서 현재 부산에서 양산까지 이어지는 지하철과 연결해서 부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4 국립대학 대학촌 건설

- 울산과학기술대학이 2009년 3월에 개교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울산과학기술대학을 건립하였습니다. 대통령과의 담판으로 신설을 이끌고,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키고, 울산시 부담이었던 건축비 1250억원 국비로 전환했습니다.
- 울산과학기술대학을 초일류 대학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초일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대학촌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대학촌의 형성이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경향입니다.
- 저는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범서읍 인근에 대학촌을 건설하여 대학과 범서읍 주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5 울주군 남부에 산업단지 조성 및 주거용지 확대

- 온양, 온산, 서생면은 오랫동안 그린벨트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지역개발과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하고, 서생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울산의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 최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공장용지가 필요하지만, 많은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로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의 탈울산화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 또한 주거용지가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울주군 남부의 주거용지 확보를 통하여 남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주거지역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서 주거환경이 편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